

신안 팔금, 백로·왜가리·괭이갈매기 집단번식 확인

불무기도서 괭이갈매기 2500쌍
암치도서 왜가리·중대백로 500쌍
압해도선 멸종위기 II급인
식충식물 끈끈이귀개 발견

신안 팔금의 불무기도에서 우리나라 대표 여름 철새인 괭이갈매기가, 암치도에서는 중대백로와 왜가리가 집단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해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희귀 식충식물인 끈끈이귀개 서식지가 발견됐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생물권보전지역과 철새 서식지로 지정된 신안 갯벌과 무인도를 대상으로 철새의 도래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중 불무기도에서 괭이갈매기가 대규모로 집단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대략 2500쌍 이상으로 파악됐다.

불무기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6호로 지정된 보호종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다. 이번 조사에서도 10여 쌍의 검은머리물떼새도 목격됐다.

암치도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중대백로와 왜가리의 집단 번식지를 새롭게 확인했다.

번식 규모는 왜가리 200쌍, 중대백로 300쌍 등 최소 500쌍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왜가리는 새끼가 부화해 새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중대백로는 산란과 포란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중대백로는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 분포하며 번식을 위해 국내를 찾아오는 여름철새이다. 왜

가리는 전국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여름철새이자 월동을 위해 찾아오는 겨울철새다.

신안 갯벌은 멸종위기 I급 황새와 II급 노랑부리저어새·검은머리물떼새·알락꼬리마도요 등 수많은 철새가 번식과 월동을 위해 찾아오는 지역이다.

압해도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식충식물 끈끈이귀개 300여 개체가 최근 발견됐다.

끈끈이귀개는 끈끈이귀개과 여러해살이 식충식물이다. 끈끈이주걱과는 달리 높이 10~30cm의 줄기가 있다. 반달 모양 앞에 끈끈한 액체를 내어 벌레를 잡는다. 현재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범주인 취약종(VU)으로 평가돼 있다.

식충식물이라는 특성으로 무분별한 채취와 자생지 훼손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신안은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 산지습지와 갯벌 습지, 생물 다양성, 맨손어업, 염전 등과 같이 자연과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200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신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정지역으로 다양한 철새 먹이가 풍부한 신안 갯벌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서식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며 "이 곳을 찾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신안지역의 식생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습지발굴조사, 주요 생태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희귀 동·식물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팔금면 불무기도에서 괭이갈매기 2500쌍 이상이 집단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제공>



포란 중인 중대백로.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 희귀 식충식물인 끈끈이귀개.

해남 두륜산 장춘계곡 '7월 관광지'로 선정



해남 두륜산 장춘계곡(사진)이 전남도의 '7월 관광지'로 선정됐다.

장춘계곡은 도립공원 두륜산에 위치한 계곡으로 천연고찰 대흥사 입구부터 일주문까지 약 4km에 이르는 산책로인 장춘숲길을 따라 흐른다. 나무가 많아 사시사철 푸르고 꽃이 피어 언제나 봄 같다고 해 '장춘(長春)'이라하며, 난대림과 계곡이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두륜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대흥팔경 중 1경으로 꼽히는 구곡유수(九曲流水)는 아홉개 계곡과 아홉개 다리를 지나 흐르는 계곡물을 뜻한다. 숲길 안쪽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돼 삼나무·측백나무·동백나무 등이 군락을 이뤄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계곡 위로 목조다리가 조성돼 있다.

다양한 식물이 원시림을 이룬 숲길을 걷다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흥사가 길 끝에서 반겨준다.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좌불을 비롯해 천년수, 일지암, 남미륵암 등 정설을 간직한 유적을 만날 수 있다.

'이달의 추천 관광지'는 전남도가 매월 테마를 정해 시·군의 추천을 받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여행 기자와 작가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명사십리 해변에 국내 첫 '비치바스켓 해양기후치유존' 조성

'코로나 블루' 해소 위한
비타민D 생성 최적 조건

해양치유산업 선도도시 완도군이 국내 최초로 신지명사십리 해변에 '비치바스켓 해양기후치유존'을 조성했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와 우울함(Blue)의 합성어인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블루'의 해소를 위해서는 비타민D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비타민D는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타민D는 햇빛에 하루 20분 정도 노출하면 자연적으로 채워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5%가 비타민D 결

핍 상태다.

이에 완도군은 청정 해변인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 국내 최초로 '비치바스켓 해양기후치유존'을 설치했다.

비치바스켓은 해양치유산업업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자로,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일광욕을 통해 비타민D를 자연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

신지명사십리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초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청정 대기환경과 함께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의 50배에 달해 비타민D를 자연적으로 보충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비치바스켓 해양기후치유존 조성과 해양기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변에 국내 최초로 비치바스켓 해양기후치유존이 조성됐다. <완도군 제공>

영광 모든 여객선 운임 1000원 섬주민 복지 위해 조례 제정

영광군은 6월1일부터 운행 거리에 상관없이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영광군의회는 지난 18일 '영광군 전원 여객선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영광지역 섬을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은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향화도~낙월도 3300원, 향화도~송이도 4800원, 계마항~안마도 5000원의 운임을 내야 했다.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이용객 수는 1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영광군은 국비와 지방비로 관련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교통복지 사책인 1000원 운임제로 섬주민의 교통 편의와 정주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